

-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5
----------	-----

제안연월일 : 2024. 09. 02.

제안자 : 이진환, 조성대, 이정애, 한근수, 이경숙,
박경원, 김현택,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박은경, 박윤옥, 김동훈, 정현미,
한송연, 김지훈(민), 이수련, 김상수,
원주영, 손정자, 전해연

1. 주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건의안 첨부)

2.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음.

나. 하지만, 자치분권을 변화의 목소리는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권한부여가 필요함.

다.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함.

라.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관 범위를 의원 정수만큼 제도 개선을 촉구함.

3. 건의안 : 덧붙임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중대한 역할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은 아직도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사무 지방이양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 지방자치법으로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 바탕으로 견제 및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권한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그에 맞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장 단 한 장에 머

물러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속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셋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2 정수 범위에서 의원 정수 범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9. 02.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